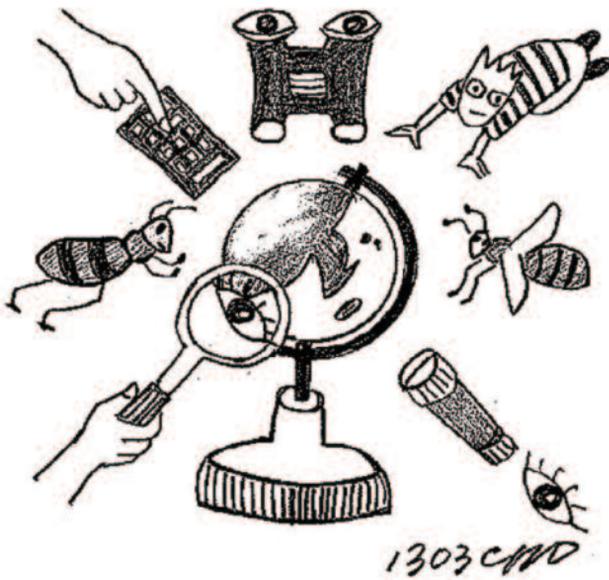


전주시 공유경제

첫 번째 이야기



더 이상 혼자 소유하지 마세요.

물건, 공간, 정보, 경험, 지식, 재능까지...

바야흐로 소유도 함께, 소비도 협동으로 하는 **공유경제** 시대입니다.

나눔으로써 더 큰 이익을 누리는 **공유경제!** 시대혁신의 아이콘!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1. 공유경제가 무엇인가요?

공유경제 (SharingEconomy)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함께 사용(빌려주고빌려쓰기)함으로써 쓰지 않고 놀리는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은 줄어 들고 자원은 절약되며, 이웃 간 공동체회복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지요. 어렵나요? 혹시 생소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공유경제를 실천해 오고 있었어요.



공유경제 기존 사례

- 너와 나 노동력을 교환하는 **폼앗이**
- 출퇴근 같이 해요 **카풀 (carpool)**
- 새 물건 사긴 아까워 **중고거래**
- 때마다 찾아오는 깨알 같은 **벼룩시장, 바자회**
-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봉사활동**
- 작아진 신발과 싫증난 옷은 **헌옷기증, 아기옷·교복물려입기**

▶그리고 보니, 주인 없는 택배 짐을 받아주시는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도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계시네요. 덕분에 매번 그 세탁소를 이용할 수 밖에도.



3. 어떻게 공유하나요?

남들이 쓰던 물건, 보증이 안 되는 서비스는 못 믿겠다고요? 친구도 못 믿는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누구와도 나누지 못할때, 우리의 삶은 단절되고 황폐해집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사람답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은 언제나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단절된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돈보다 얻기 어려운 것!)를 먼저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며, 커뮤니티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완성되는 휴먼 네트워크 순환경제입니다. 누구든지 당장 쓰지 않는 물건, 남는 공간,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지식과 기술, 재능 등을 나름의 이용규칙을 정하여 교환,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놀이, 활동, 사업을 자유롭고 무한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자원을 내어주는 사람은 이용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은 자원을 내준 사람의 신뢰에 자신의 믿음을 보태어 돌려주어야 합니다.

tip

명절에도 실천하자 공유경제

어머님들! 매년 명절마다 음식 장만하느라 힘드시죠? 명절음식은 대충 만들수도 없고... 아무리 적당히 준비한다 해도 매번 남기기 일쑤! 정성껏 만든 아까운 음식들이 어김없이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설마 아직도 냉동실에 추석 송편이...?)

그렇다면 주변 이웃들과 식재료를 공동구매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같이 모여서 요리도 하고요. 일손도 덜고 비용도 줄이고! 만든 음식은 필요한 만큼 나눠서 가져가니 버리는 음식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남는 음식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혹은 거실이 넓은 집에 모여 '명절뒷풀이' 파티를 열어봅시다. 마음껏 수다 떨며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 버려요. 그래도 남으면? 명절에도 독거하는 '집밥'이 그리운 학생, 청년, 어르신들 잊지 말아 주세요~

공유경제 시작하는 법

실천1.

혼자서 가끔씩 이용하는 자가용, 자전거, 캠핑용품, 공구 등이 있다면 '이용규칙'을 만들어 인근 이웃, 친구, 동료들과 함께 사용해 보세요. 혼자 쓰자니 묵히는 것 같아 아깝고, 팔아버리자니 가끔씩 아쉬운 '소유비용이 높은' 물건들은 공동으로 이용할 때, 관리비도 절감되고 물건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실천2.

한적한 커피숍 운영자는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부족한 영세 공예품 작가, 학생밴드나 아마추어 악기연주자, 영상제작 동아리 등과 협업하면 카페에서 공예품 전시/판매 및 밴드공연, 영화 상영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종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천3.

혼자만 사용하기 너무 넓은, 혹은 빈 사무공간이 있다면 벤처창업가, 프리랜서를 위한 공유사무실(코워킹 스페이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청년창업자, 연구자, 기술자, 젊은 개발자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네트워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싹트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방은 체험장으로, 공터는 공원으로, 혹은 공연장으로, 운동장으로, 장터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습니다.

떨독! 공유경제를 위한 준비물

내가 가진 자원에 대한 확신, 나누며 소통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 위한 부지런함만 있으면 누구든지 오늘부터 공유경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공유는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그에 기반한 커뮤니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돌려주게 될 거예요.

“

자, 이제 공유경제가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나만의, 아니 모두의 **공유경제**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의 유희자원은 무엇인가요?

”



추천! 공유경제의 개념과 사례, 전망에 관한 책들

- 공유경제, 나눔의경제학 (로나골드/ 조윤커뮤니케이션)
- 우리가공유하는모든것 (제이월재스퍼/ 검등소)
- 나는세여하우스에산다 (니시카와야쓰코/ 푸른지식)
- 공개하고공유하라 (제프자비스/ 청림출판)
- 한계비용제로사회 (제리미리프킨/ 민음사)
- 빅스몰The big small (김상훈/ 자음과모음)

❖ 전주시 공유경제 포럼 준비모임 ❖

전주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TF (063-276-9302)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063-281-2959)

전북 여성일자리센터 (1577-3813)

전주시 사회적경제과 (063-281-2257)

전북 공유경제연구회 (010-6684-7866)

사회적경제 청년모임 (010-2054-2956)